

2008 「동북아 청소년 국제환경 심포지움」  
- 기조연설 : 세계의 환경문제 및 각국 청소년들의 연대 필요성 -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장규신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장 규신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 대한민국의 충남 태안에 함께 모여 『 2008 동북아 청소년 국제환경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곳 태안은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소중한 저의 고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욱 기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또 서로간의 우호와 연대감이 더욱 강화되어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21세기 주역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지구촌의 환경문제와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미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간의 새로운 형태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급속한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 목표는 이루어 냈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 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로서, 그동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위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째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분들의 정보공유와 연대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의 환경오염은 이제는, 그 지역에 대한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합니다. 해양오염, 산성비, 기후변화, 황사, 사막화, 자원고갈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환경문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환경문제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지구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 그 영향을 서로 주고 받을 수 밖에 없고, 또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우리들이 사는 곳, 즉 가까운 곳에서의 문제부터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극의 빙하가 계속 녹아내려 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 지역의 환경문제이지만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빙하가 녹게 되면 바다의 수면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낮은 지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땅들이 바다 속에 잠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세계 곳곳의 환경문제에 대해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남극의 빙하가 녹지 않도록 냉장고를 들고 가서 계속 물을 얼려야 할까요? 네,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각자의 장소에서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빙하가 녹는 원인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대기 중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기후변화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동해 나간다면 빙하가 그렇게 쉽게 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행동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환경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적 생활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문제에 관한 몇 가지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무엇 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환경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문제입니다.

단어만 생각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추워지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란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2004 )”나,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2006)”을 본다면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지 모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 현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요소들에 의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함으로써 지구 환경위기가 더욱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빙하가 녹게 되면 곧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대가 낮은 나라의 많은 땅 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몰디브 섬과 그리고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의 많은 땅들이 사라져 버릴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지 않는 땅으로 모두 이동해야만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영화 “투모로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재해를 피해 미국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어떤 지역은 대홍수 또 다른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 받는 지역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만 해도 큰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해일 피해에 대한 뉴스가 예전 보다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셋째로, 가뭄현상으로 인한 물 부족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국 양쯔강은 100년만에 찾아온 심한 가뭄현상으로 사람들의 식수의 부족은 물론, 야생중국 철갑상어와 같은 양쯔강의 진귀한 수생 생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인구의 40%가 심각한 물 부족 상태입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52개국 30억명이 물 부족을 겪을 전망이며, 현재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이미 3억명이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물 부족사태에 직면 할 것 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꽃의 조기 개화, 새들의 조기 산란, 그리고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변화시켜 계속적으로 동.식물의 멸종을 가속화 시켜나간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들로 인해 지금까지 자연생태계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희귀한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온상승에 따른 사망률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을 야기시키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온실가스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온실가스는 지구를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과도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환경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하지만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많아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화석연료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이 그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등 자연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우리들에겐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산림파괴와 에너지 과소비를 들 수 있습니다. 옛 한자 중에 쉴 휴(休)자를 보면 나무에 사람이 기대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은 우리에게 친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강과 그 외 여러 나라의 열대우림들이 점점 사람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쉴 휴(休)자에 칼 도(刀)자가 붙은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칼 도(刀)자가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도 파괴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과소비 문화는 각종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증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한 사람만이, 한 지역만이,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속담의 말 처럼, 우리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국가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다소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브라질 리우에서 각 국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촌 환경을 지켜 나가자는 아주 의미있는 세계 환경선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른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세계 환경선언 회의 못지않게 더 큰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점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감으로써 미래의 환경문제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각 지역의 대표, 나아가 각 나라의 대표이며, 우리 지구의 하나의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신 소중한 경험들을 스스로 없이 서로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환경을 좀더 이해하고, 아울러 우리 청소년간의 우애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녁이면 온통 산하를 붉게 물들게 하는 저녁노을과 밤이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은 수많은 별들, 그리고 해변가에서는 모두 시름을 씻어갈 것 같은 시원한 파도소리 등 그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특히 파도소리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여 파도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저도 건강한 마음과 몸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한 지금처럼 제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아름다운 고향이 지난번 겨울에 큰 환경재앙을 만났습니다. 바다가 온통 새까만 기름 바다로 변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염된 바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조개와 새들, 힘들어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곳 태안 앞바다로 달려와서 자기 고향의 일 처럼 모두 함께 구슬땀을 흘려가며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지는 하지만, 그 때의 감동과 고마움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각 나라를 대표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나 보니, 여러분들의 서로 힘을 모으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국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만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